

문화·  
균형·  
성장의  
공간

# 국립어린이박물관

이동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  
국립박물관단지팀장

## 개요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누리로 130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29,635m <sup>2</sup> (문S-1 용지 중 2, 3, 4, 5)
건축면적	4,572.82m <sup>2</sup>
연면적	16,847.94m <sup>2</sup>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높이	24.20m(통합운영지원센터 기준, 4층)
건폐율	15.43%
용적률	22.8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주)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계룡건설산업(주)
시공기간	2018.12.28.~2023.2.28.
공사비	약 362억 원



진입광장과 통합운영센터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문화적 상상력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모든 전시실의  
공간감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박물관 내 전시관들은 중앙 경사로로  
연결되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시공간이다.  
지역의 토착식생을 적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아이들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주출입구 공간





입구 공간에서 보이는 숲속놀이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설 체공



기획전시실 외부와 2층 중정



상하 희망  
토착 식수가 식재된 중정



상      지구마을놀이터  
하·좌    도시디자인놀이터  
하·우    숲속놀이터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은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관심의 표현으로, 앞으로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의 체험전시  
기획·운영과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다이나믹한 외장 마감재의 활용

## 문화균형발전의 거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앰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문화 분야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황으로, 국립박물관의 38%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데다 관람객 100만 명 이상 대규모 박물관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활동 견수도 수도권이 지방 대비 2.1배에 이른다. 앞으로 그 격차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균형발전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다행히도 행복도시건설사업 초기 법정계획인 기본·개발계획 수립 당시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미술관, 역사민속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4개의 개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반영한 이후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행정청·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문화유산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MOU를 2012년 6월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한 후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2016) 등을 거쳐 2020년 12월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착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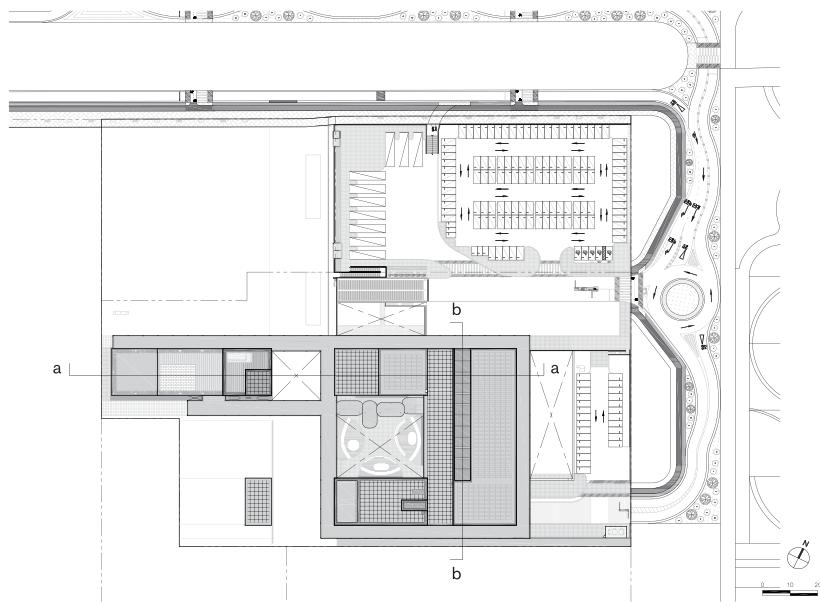
##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2016년 5월 18일 공고 후 2016년 11월 14일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박물관단지의 대지는 강, 절벽, 공원, 다양한 문화시설, 도심지, 경계가 둘러싸인 매우 흥미로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대지는 박물관단지가 문화와 자연 사이의 연결다리로서 디자인되도록 요구한다. 대지는 하얀 도화지와 같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압도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단지는 주변 환경의 다양함을 관찰하고 강조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지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지역 풍경을 가진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특별한 풍경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곳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더 어울리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균형발전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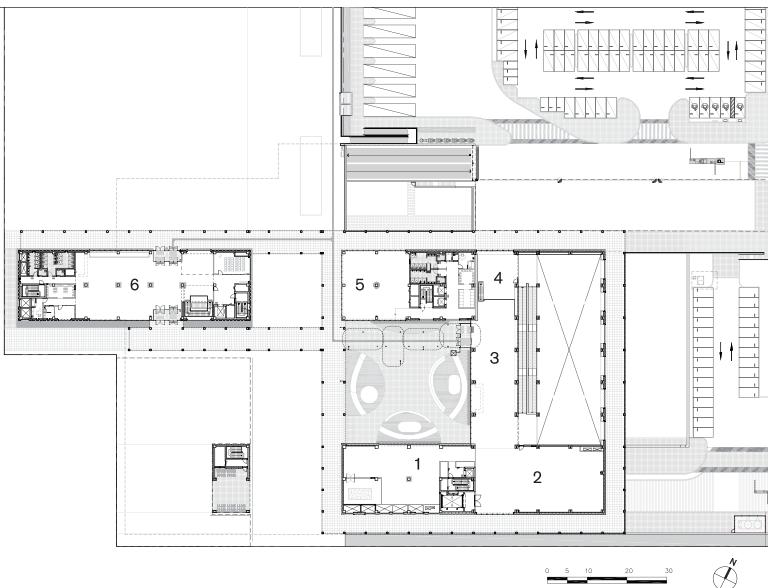


상 진입광장과 통합운영센터  
하 입구 공간에서 보이는 숲속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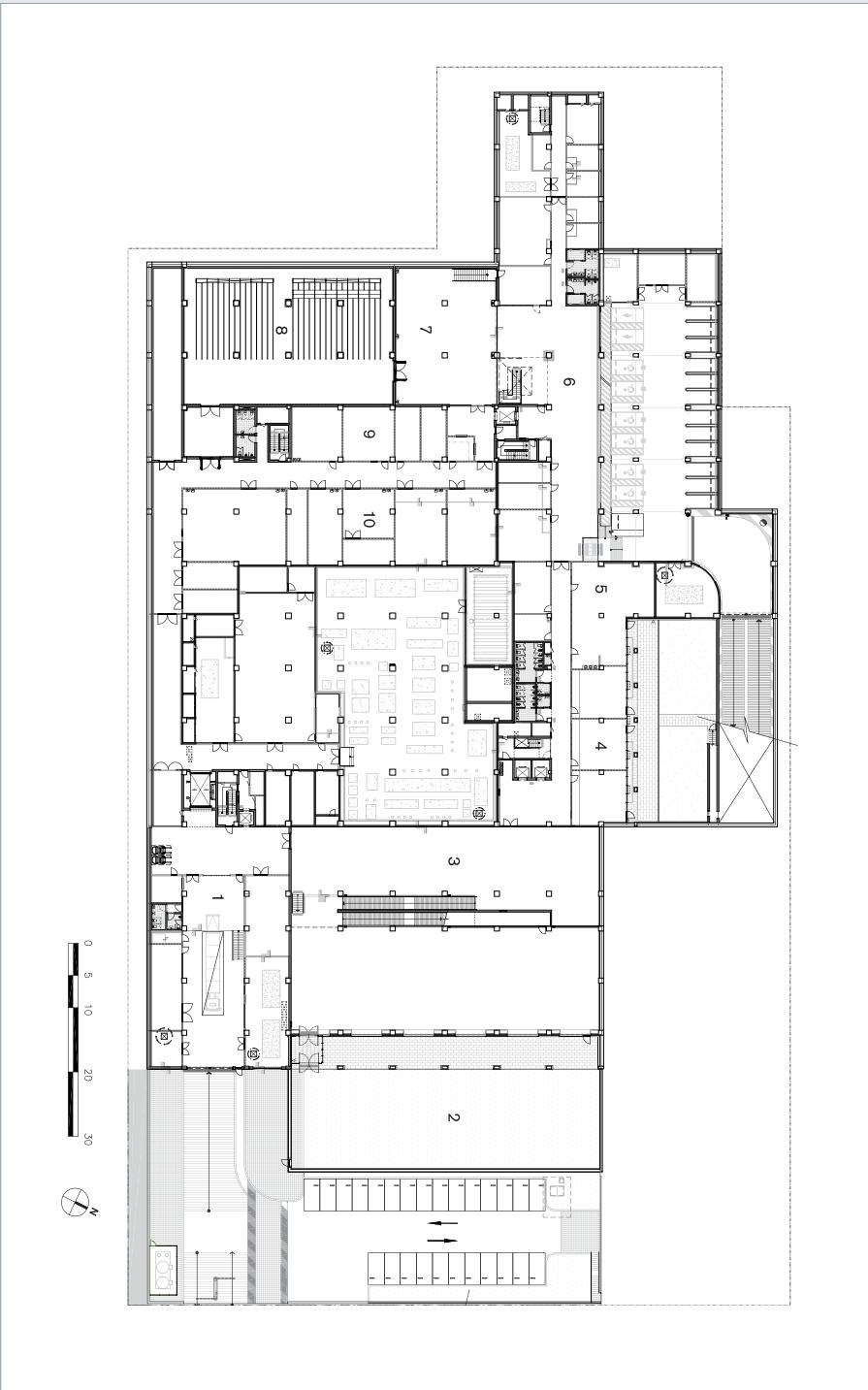


배치도

- 1 임시전시실
- 2 전시실(지구마을놀이터)
- 3 로비
- 4 복합전시실
- 5 영유아 상설전시실  
(금속놀이터)
- 6 통합운영지원센터 로비



지상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주출입구 공간

한국문화재청 국립어린이박물관

건물의 캐노피는 일정 높이의 단순한 선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대지 내 다양한 지형이 일정한 면을 형성하는 박물관의 볼륨과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관은 박물관 외부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보이도록 하고, 흥미로운 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보행자 동선은 북측을 주진입으로 계획하였고, 부진입으로서 측의 나성1교, 동남측의 금강보행교를 통한 진입과 동측 중앙공원에서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차량의 주출입은 북측도로(왕복 4차로)이고, 서측 나성1교는 부출입으로 계획되었으며, 하역동선은 동측 공원관리도로를 통해 어린이박물관 남쪽으로 진입한다.

북측 남북·동서 방향 도로는 회전교차로로 계획되었다.

### 국립어린이박물관 건축계획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교육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된 입면과 작은 정원, 테라스를 계획하였다. 재미있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역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외부공간은 지역의 토착식생과 지역의 상징이 되는 꽃, 과실수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균형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단지 외부의 시설로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 중앙공원과 인접해 배치하였다.

특히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국가 상징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지역시설이 아닌 국가 상징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의 계획개념 및 구체화 결과를 반영하여 인접한 중앙공원·금강 등 주변 시설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패시브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영향개발기법(LID)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문화적 상상력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모든 전시실의 공간감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박물관 내 전시관들은 중앙 경사로로 연결되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시공간이다. 지역의 토착식생을 적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아

이들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단지의 핵심 편의시설인 통합운영센터는 북측 도시상징 가로와 진입광장, 단지 중앙으로 이어주는 연계축으로서 진입동선을 고려하였다. 통합수장고와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운영 동선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통합수장고는 단지 중심 하부에 배치하여 관리지원시설 일원화를 꾀하였다.

###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작년 12월 26일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순차적으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도시건축, 디자인, 문화유산, 기록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한 상설전시관과 지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지난 3월 1일 정식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에는 매주 평균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전 회차가 매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전시 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상상과 공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통상적인 박물관에서 발전하였으나, 어린이가 대상이고 전시물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새·곤충·식물 등 실물표본이나 소형 전시물을 어린이 체험용 교구로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어린이박물관이 등장하였고, 1960년대부터 어린이가 직접 만지고 노는 놀이 중심의 체험전시물을 배치하는 운영 방식이 본격화되었다. 세계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인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1899년)을 시작으로 영미권에서 확산되어 현재는 전 세계에 400여 개의 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속 박물관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박물관이 주가 되며,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의 주요 어린이 문화시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서비스로서 전시 외에 교육 프로그램도 중점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경주박물관학교(1954년)에서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최초로 운영하였고, 민간에서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최초의 독립 형태



상 기획전시실 외부와 2층 중정  
하 다이내믹한 외장 마감재의 활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상 **숲속놀이터** 하 **도시디자인놀이터**

로 개관(1995년)하였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부속 어린이박물관(2005년)을 시작으로 확산(17개)되어 모박물관의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험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독립된 형태의 공립어린이박물관이 증가하여 어린이를 위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은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관심의 표현으로, 앞으로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의 체험전시 기획·운영과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속놀이터'는 상설전시관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전시실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두의 금'을 주제로 시각·청각·촉각·신체활동을 하는 전시물과 역할 놀이가 가능한 체험물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지구마을놀이터'는 시의성 및 학습 필요성이 있는 주제로 전시테마(1년 단위)를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간이 만든 도구와 기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도시디자인놀이터'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도시를 구성하고, 색칠놀이와 서명을 통해 '내가 만든 도시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놀이터는 민화 그려 보기, 민화 속 동물이 되어 보기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더 크게 성장할 미래

국립박물관단지에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2026년), 디자인박물관(2027년), 디지털문화유산센터(2027년), 국가기록박물관(2028년)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소재 국립민속박물관이 2031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국립박물관단지는 명실상부하게 중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립박물관단지 잔여구역(2구역) 약 7만 1,000제곱미터에 추가로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로 유치 가능한 박물관·미술관 등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인근에는 중앙공원·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예술의전당 등 풍부한 문화·여가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을 연계하여 중부권 문화·관광·여가벨트가 완성된다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복도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    지구마을놀이터  
하    토착 식수가 식재된 중정